

순수 철학도의 길

유 준 수
(한양대)

인간의 삶의 가치척도는 한마디로 그의 순수성여하에 달려있다고 해도 무방하다. 내가 한전숙 선생을 대할 때마다 언제나 생각나는 것은, 그가 좋아하는 후설의 말이다. 즉, 그것은 “현상학적 방법은 학문의 유일한 방법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현상학적으로 살아야만 된다.” 한 부문이다. 이 말은 쓸데없이 사변적구성에 개의치 말고 어디까지나 체험의 사실에 입각한 객관적 태도를 강조한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무전제의 원칙과 통하는 구조로서 바깥으로 향하라는 뜻이 아니다. 도리어 안으로 즉 순수의식으로 향하라는 뜻이다. 보다 더 순수할수록 직접적이며 명증적이다. 현상학적 환원이란 이런 절대적 명증으로 돌아가는 과정 즉 방법이요, 순수로 향하는 노력의 단면이다. (한전숙 著 현상학의 이해, 머리말)

몽부랑의 산정을 올라갈려면 단지 그 정상을 바라보기만 하면 안되는 것이고 먼저 산록에서부터 한발자국 한발자국 기어올라가야만 되는 것 처럼 학문의 세계도 이 순수라는 초석이 기초공사인 것이다. 고층건물의 기초공사로서의 초석역할에 기꺼히 자인(自安)하는 분이 바로 순수일변도의 삶의 상징인 한선생이 아닌가 생각된다. 안으로의 순수성 추궁과 밖으로의 사상(事象)자체에로의 정신적 갈등과 조화가 바로 그의 삶의 전부인 것도 같다.

후설말마따나 진리추구는 이미 있는 학설의 해석이 아니라 자유로운 사색에서 발달된다. 이 겸허한 말 뒤에는 강인한 학문적 열정이 깃 들어 있다.

자유로운 사색은 순수의식의 세계에서 가능하다. 일상 자연의 태도를 일단 팔호속에 집어넣고 자기성찰을 끊임없이 추구하는 곳에 순수의 마당이 열리고 참된 자유의 모습이 드러난다고 하겠다.

어떻게 보면 이러한 현상학적인 방법은 일찌기 우리 동양사람들이 안주하는 불교의 공(空)의 세계와 비유될 수도 있다. 분별지(分別智)의 세계를 일단 덮어두고 무분별지(無分別智)의 척도로 세계를 가늠하는 지혜가 거기에 숨겨져있다. 아마도 한선생의 가슴속에는 이러한 동양적인 향수가 깃 들어 있어 그러한 순수성을 지향하는 삶을 영위한지도 모른다. 어떻게 보면 격동기의 우리주변에서 객관정세의 악화와 더불어 인간의 생활에 여유가 없어지니까 이러한 우울한 상태 즉 고택(苦海)에서 어떻게 하면 마음의 자유를 획득할 수 있는가 하는것이 절실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해결의 하나의 방법으로서 일찌기 고대 그리스의 말기, 뤼론(Pyrrhon)이 판단중지(epochē)을 제창했다. 물론 뤼론의 생각속에는 인간의 지혜에 대한 불신이 그 기초로 되어 있다. 그러나 오늘의 현상학과에서 주장하는 그것은 회의주의적인 판단중지가 아니라 도리어 인간의 지혜에 대한 깊은 신뢰가 있기에 향외적인 감각적 직관에서 향내적인 본질직관으로 지양한 것이라 하겠다.

시간적 공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사실이라고 부른다. 여기에 대해서 시·공을 초월

(柳俊秀)

한 불변의 것을 본질이라고 한다면 일상자연의 태도에 부착한 선입관을 제거만 시킨다면 거기에 순수한 본질직관의 가능성이 깃들게 된다. 따지고 보면 본질직관이란 결코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순수성 그 자체라 하겠다. 고대 그리스의 플라톤이나 인도의 석가모니가 한결같이 이 순수성에 기초를 둔 진리탐구의 길을 걸었던 것이다.

우리가 후설의 현상학적 입장을 「근세적 플라톤주의」라고 일컫는 연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플라톤의 이데아의 직관이나 후설의 본질직관이 다같이 순수라는 기초공사의 초석에 세워진 삶의 영위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철학적 사색의 진행양식에 있어서 현상학적인 방법을 높이 평가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다.

후설은 일상자연의 태도에 있어서의 경험에 소위 말하는 현상학적 환원을 행하고 그런 태도 거기 남아있는 것을 현상학적 잔여(殘餘)라고 불렀지만 이 「잔여」라는 것이 요컨대 「순수의식」인 것이다. 이 「순수의식」의 태두리속에 현상학 고유의 영역이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한 이것이 철학의 근원적인 마당이다.

후설의 “자기는 어디까지나 가장 기초적인 일에만 전념한다”는 자각적 태도는 바로 세상에 적극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덮어두고 도리어 공평한 방관자로서 여러가지를 경험한 자아(自我) 그 자체속에 주어진 현상에만 초점을 둔다는 뜻이다. 이것이 전술한 순수의식의 마당이며 그의 철학체계의 기초적 초석인 것이다.

이러한 후설의 생활세계를 자기것으로 소화시킨 분이 바로 한전숙 선생의 삶의 마당인 것 같다. 사람은 누구나 지향하는 인간상이 있다. 길으로는 온화하면서도 안으로 강인한 성격의 소지자인 한선생은 남에게는 관대하지만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한 면이 있다. 이것이 철학도로서 엄밀한 자기성찰을 모태로 하는 현상학연구에 일생을 바쳤는지도 모른다. 이렇게 볼때 그의 생활세계는 바로 그의 철학의 연장이다. 순수성을 바탕으로 한 삶의 태도나 상호주관성을 인정하는 공생의 세계관등이 한결같은 그의 철학이며 생활이다. 이것이 그의 매력이며 동료나 제자들에게 주는 교훈이다.

그는 순수성을 솔직담백한 그리스적 성격과 엄격한 학문적 자기성찰을 통한 현상학적 방법에 의하여 지키려 한다. 그렇다고 자기고집은 결코 아니다. 이미 학문적으로 근대적인 비판적 세계를 거친 분이고 상호주관성의 원리로 무장된 분인지라 자기주장을 조화롭게 승화시킨다.

그는 이 순수성의 세계를 형이상학적인 것으로 다루기를 싫어하는 것 같다. 어디까지나 이 현실에 철저하게 충실함으로써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순수성은 영원과 통한다. 그런데 이 영원은 현실적인 순간을 떠나서는 전혀 공허한 것이 된다. 영원은 순간에 의해서 충실화 되고 거꾸로 순간은 영원에 의해서 의미가 부여된다. 이런 까닭으로 순수성을 지키는 것은 이 현실의 길을 정진하는 것이고 또한 이것이 참된 산 철학이라 하겠다.

이런 의미에서 한전숙 선생의 순수일변도의 삶의 영위는 그의 철학이며 신앙이다. 그는 순간 순간에 영원을 부여하기 때문에 순수하며 생기에 차 있어 항상 젊다. 그가 이미 60고개에 이르렀다는 것이 실감이 안간다.

한전숙 선생은 일찌기 함남에서 교육자의 집안에서 태어나 일제시대 함남중학을 거쳐 경성대학(현 서울대) 예과에 입학, 해방이 되어 서울대 철학과를 졸업, 전북대학교에서 교편

을 잡았다. 그후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수학하신 후 귀국하여 69년에 서울대학으로 자리를 옮겨 오늘에 이르렀다.

75년에 “Husserl에 있어서의 Descartes적 길과 非Descartes적 길.”이라는 논문으로 서울대에서 철학박사 학위를 취득하셨다.

한선생이 1948년에 고 박종홍 교수의 강의에서 후설의 현상학에 눈을 뜨게 되고 그후 1959년에 하이델베르크 대학에서 가다마(Gadamer) 교수의 권유로 현상학에 발을 들여 놓게 되었다. 그후 근 30년 가까이 이 영역에서 10여편의 논문이 결실되고 그 가운데 전기 논문으로 75년에 모교에서 학위를 취득하게 된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의 학문적 생애의 대반을 이 영역에서 생활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한선생의 저서로는 “현대의 철학”(공저)이 서울대 출판부에서 나왔고 역서로서 보헨스키의 「현대철학」이 출판됐다. 그리고 그의 학문적 결실이라고 할 수 있는 “현상학의 이해”가 84년 7월에 민음사에서 출간됐다. 이 책은 그의 25년간의 현상학에 대한 끈질긴 싸움의 결실이라 우리 한국철학계에 높이 평가될만한 것이라 여겨진다. 그래서인지 고 박종홍 선생님을 기리는 열암사범기념회에서 수여하는 열암학술상을 수여받았다.

이제 현상학탐구의 나그네길을 정리해 본다. 1963년에 사상(事象) 그 자체로써 객관적으로 다룬 “E. Husserl에 있어서의 客觀性”을 효시로 1966년에 “感覺과 身體” 1970년에 “E. Husserl의 現象學.” 이 논문은 고전적 현상학 즉 후설의 전기사상을 다룬 것이다. 이어서 1973년에 “Husserl의 現象學은 現象論이 아니나?” 1977년에 “Husserl의 生活世界 概念.” 같은 해 12월에 “現象學에 있어서의 經驗의 意義(Ⅱ)”가 나왔다. 이 논문은 후설의 후기 사상을 정리한 것이다. 이어서 “W. James의 根本的 經驗論과 現象學.”이 1979년에 발표되고 1980년에 “現象學的 運動의 起源과 展開”가 나왔는데 이 논문은 후설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범세계적인 현상학적인 운동의 대강을 정리한 것이다. 다음에 1983년에 “現象學에 있어서의 先驗性的 문제.” 등이 있다.

한선생의 이와같은 안으로의 끊임없는 자기성찰과 더불어 밖으로의 현실에의 충실도는 가정에서의 화목과 또한 원만한 학회활동을 들 수 있다. 남들과 같이 금전적으로는 풍부치는 않으나 너그러운 남편과 아버지로서 그의 화목한 가정생활은 언제나 우리를 흐뭇하게 한다. 그의 이러한 관용적인 대인관계는 학계에서도 정평이 있어 철학연구회 회장과 한국철학회 회장(1985~1987) 직을 역임하셨다.

한마디로 한선생은 순수성과 현실문제를 조화시키면서 살아가려는, 자신에게 엄격하고 남에게 관용적인 삶의 자세로 일관시킨 철학도의 길이라 할 수 있다.

필자는 그간 30년 가까이 그를 선배로서 모시면서 말없는 가르침을 받은 것을 새삼 감사하면서 선생님의 순수일변도의 삶이 언젠가는 우리의 크나큰 정복이 되었으면 하는 염원이 간절하다.

끝으로 선생님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런 졸필을 가하지 않았나하는 염려와 선생님의 가정에 행복과 건강 그리고 학문적 발전을 기원합니다.